

제 395 호 2025 년 08 월 21 일

대만, 미국과 이웃 파트너들에게 버림받았나?

대만이 직면한 안보 위기와 국제적 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중국은 전면 공격, 완전 봉쇄, 점진적 침공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대만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근 거부,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지대 기법 등 다양한 전략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비판, 무기 납품 지연, 대만 해협 위기 시 소극적 대응 등이 대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일부 주변국들이 중국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대만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만이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위협 증가와 상대적 지원 부족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의 중국 견제 노력으로 중국의 완전한 우위 확보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KIMS Periscope



Non-Resident Research
Fellow
YCAPS

Dr. Benjamin Blandin

중국의 선동에 따라 대만 해협에서 양안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은 1979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온 대만의 사실상 독립은 아니더라도 대만의 자치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통에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러시아와의 잠재적 휴전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취했던 최대 압박 방식의 반복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미국의 완전한 이탈을 우려해야 할까? 미국 이탈 우려는 최근 미국이 미대륙과 유럽 및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파트너와 동맹국에게 가혹한 관세 및 기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고려할 때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군의 풍선, 항공기, 심지어 미사일에 의한 해협 중앙선 및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샤먼 앞바다의 진먼 제도 주변과 본섬 북단과 마츠 군도 사이의 해저 케이블 파괴 행위가 관찰되고 있다. 또한 대형 바지선을 동원한 중국군의 상륙 훈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진과 위성 이미지가 유포되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침략 시나리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대만 재통합을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예상하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가 고려되었다. 첫번째는 미 국방부가 실시한 '워게임(war game)' 훈련에 기반한 것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포함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싱크탱크인 CSIS 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가 추진한 것으로, 격리 구역을 설정하고 점진적인 경제 봉쇄를 포함한 강압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세번째 시나리오는 봉쇄 기법을 사용하여 대만이 통제하는 영토를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침공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1: 본섬 전면 공격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방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 훈련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전면 공격에는 수천 개의 미사일, 완전한 공군 및 해군 봉쇄,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활동 및 통신 전쟁 작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치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약 15 만에 달하는 군과 다수의 해상병력을 잃을 수 있고,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수많은 전투기를 잃을 수 있지만 어느 쪽도 공군 또는 해군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시나리오는 실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전략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다. 첫째, 전투가 약 7 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도시화가 심한 해안선을 고려할 때 제한된 수의 해변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줄어든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해안과 섬을 완전히 순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함께 상륙정과 바지선, 해병대 및 공수 부대가 부족하다는 점이 당면한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해군 우위를 확보하려면 해협 내 또는 대만 전역의 모든 민간 해상 교통의 경로를 완전히 변경해야 하며, 이는 해상 운송은 물론 지역 및 국제 항구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여 잠재적으로 수개월 동안 중단될 수 있다. 중국 공군이 광둥성, 저장성, 장시성(또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공항과 비행장)을 동원할 경우 대만과 푸젠 영공 전체, 심지어 그 너머까지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등 항공 교통에도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특히 블룸버그는 고강도 공개 분쟁이 수개월간 지속될 경우 전 세계 GDP 의 10%(중국 10%, 대만 40%)가 손실될 수 있으며, 아시아를 오가는 무역이 50~80% 감소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시나리오 #2: 대만 본섬의 완전한 봉쇄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가 2024 년 발표한 세 개의 보고서 시리즈는 중국이 다양한 강압 수단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대만 주변을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의 세 가지 변형을 살펴봤다. 그 세가지 시나리오는 "해군 및 공군 차단 구역 설정", "수십 척의 선박(해군, 해안 경비대, 해상 민병대)을 상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배치하여 '격리' 또는 '봉쇄' 실시", 그리고 "전략 미사일 부대 동원 또는 기뢰 배치" 이다.

이 시나리오의 신뢰성은 2022 년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제 4 차 대만 해협 위기에서 실제로 입증되었다. 이 방문에 대응하여 중국 당국은 수십 척의 선박과 항공기를 배치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으며 대만 영공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여러 차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그 중 일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 이후 이러한 훈련은 2022 년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남중국해와 보하이해(발해)에서의 해군 공중 훈련, 진먼 열도와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 및 동중국해 주변에서의 빈번한 작전 전개, 중간선 침범, 풍선 날리기, 매일단위로 실시되는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더해 실시되고 있다.

시나리오 #3 : 비폭력적 점진적 점령

필자는 2023 년 9 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에 기고한 "대만: 대안적인 "고통없는" 침공"이라는 글에서 진먼, 우추, 마츠 군도, 페스카도르스 군도, 남중국해에 위치한 섬(이투 아바, 프라타스), 대만 본섬 등 대만이 통제하는 영토를 비폭력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점령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의 내용은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모든 섬과 암초를 완전히 봉쇄하고, 인민해방군, 해안 경비대, 전체 해상 민병대(최대 8,000 척의 저인망 어선)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해군 자산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물, 식량, 연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린 다음 "폭력 없이" 해당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의 첨단 센서와 전진 작전 기지를 점진적으로 마비시키고, 이후 가능한 무력 행동을 용이하게 하며, 중국 정부와 군대의 위신을 높이는 동시에 상대군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대만 국민의 사기에 상당한 타격을 입혀 중국 언론과 지역 '통일 전선' 조직 및 친중 영향력자들이 수행하는 심리전 및 대중 선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처음에는 진먼, 우추, 마츠 섬이 함락되고 프라타스, 이투 아바 섬, 페스카도레스 군도, 마지막으로 대만 본섬이 함락된다. 만약 포위된 섬들에서 무력으로 봉쇄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본섬에서 군을 보내는 등의 대처를 한다면,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혹은 중국 당국과 언론에 의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

미국,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 칩 분야에서 대만의 '지배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칩 제조는 가치 사슬의 여러 차원 중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대체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TSMC 가 미국에 1,000 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총 투자액은 1,650 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러한 투자는 주로 미국 방위 산업의 이익을 위해 1979 년 이후 대만이 발주한 대규모 군사 장비 주문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수년간 지연된 미국의 주문 이행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은 2022 년까지 총 930 억 달러(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820 억 달러)의 누적 주문을 했으며, 이 중 220 억 달러는 최근 총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품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 장비 중에서도 F-16 전투기와 미사일의 인도가 수 년째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4-1955 년, 1958 년, 1995 년의 대만 해협 위기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대만과 협력해 왔다. 1974 년 미군이 철수하고 1979 년 중국이 공산당을 인정한 이후에도 대만 관계법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관계를 공고히 유지했으며, 이러한 지원은 언론, 군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갱신되어 왔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랫동안 중동에 집중한 후 시작한 아시아 피벗 정책은 대만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전략적 재투자도 이어지지 않았고, 필리핀을 제외한 일본, 한국, 괌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 발생한 4 차 위기에도 중국의 무력 시위 이후 미국의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대부분의 전통적인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비판, 캐나다,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그린란드를 '어떤 식으로든' 점령하려는 욕망,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 태도, '오커스(AUKUS)'에 대한 무관심, 캐나다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위협 등 일련의 다소 놀라운 행동으로 인해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대만 포기의 위기감이 더 커졌을 수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작된 오커스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은 5 억 달러의 호주 지분을 확인한 후에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대만의 정치 및 군사 엘리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만이 잠수함, 수상함, 드론 및 초고속 미사일을 포함한 군수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자체 산업 및 기술 방어 기반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 대만을 위협하기 위한 움직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의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침공 실패 시 입을 치명적인 피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폭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접근 거부, 하이브리드 전쟁, 회색 지대 기법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일련의 전략을 활용한다.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접근 거부 전략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 버블 또는 차단 구역을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군은 레이더와 대함 및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해안을 따라 공군 기지를 확장 및 개선했으며, 함정과 항공기의 수와 품질을 향상시켰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한편으로는 해협 상공의 민간 항공에 대한 일방적인 비행 계획 수립 및 변경을 통해 해상과 공중에서 중간선을 다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양안 간의 비즈니스 수행을 촉진하며 대만 시민이 준 중국 신분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적 및 법적 수단을 포함한다.

회색지대 전략은 대만의 해상과 영공을 침범하며 대만의 조종사들과 선원들을 지치게 하고, 자국에 유리한 '뉴 노멀(new normal)'을 만들고,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항공기는 물론 함선의 수를 더욱 늘려 대만이 통제하는 섬의 해안에 가까이 배치하는 등 치열한 정보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대만 주변의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이웃들

대만이 처한 문제가 충분히 심각하지 않다면,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부 국가가 대만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중국의 단기 경제 원조를 대가로 매년 대만을 점점 더 외면하는 남태평양 국가나 중국과의 '평화 통일'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중국 당국의 공식 어휘를 채택하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가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 적대국이었던)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대만을 독립 국가로 지정한 후 대만을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고 부르는 국제적으로 눈에 띄는 특정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역전과 입장 변화는 중국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게다가 최근에는 양안,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대만 병합을 지지하는 친중 인플루언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인 '야야'는 중국의 무력 통일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후 거주 허가가 갱신되지 않아 출국 당일 지지자들과 함께 타이페이의 정부 청사 앞에서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다.

결론

미국과 이웃 국가들이 대만을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만이 중국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언론과 정치적 측면에서 지원이 부족하며, 원조나 무기 공급이 지연되는 것은 중국 정치 및 군사 당국이 대만의 약점을 파고 들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대만 국민 대다수가 현상 유지 입장을 지지하고 스스로를 중국과 동일시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만 군대는 인구 고령화, 군 경력에 대한 불만, 노후화된 전투 플랫폼, 수출입을 위한 대만의 극심한 해상 의존도라는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침략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전략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만 외에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이웃 국가들도 중국의 침략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요나구니 열도(류큐 열도)에 사거리가 200km 에서 1000km 로 늘어난 12 형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방어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브라모스 미사일 여러 포대를 확보하여 중국이 당초 계획했던 포위망을 구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항공기 분산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완전한 공중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Taiwan, abandoned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neighbors and partners?”

Dr. Benjamin Blandin

Non-Resident Research Fellow, YCAPS

As incidents multiply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aiwan Strait, at Beijing's instigation, the United States, under President Donald Trump, appears to be turning away from the American tradition, constantly renewed since 1979, of supporting Taiwan's autonomy, if not de facto independence. Should this be seen as a repeat of the maximum pressure method employed against Ukraine during negotiations on a potential ceasefire with Russia, or should we fear a complete disengagement by the United States? This second scenario may seem all the more credible given that the United States has recently harshly criticized and threatened to impose prohibitive tariffs and other sanctions against most of its partners and allies, both on the American continent and in Europe and Asia. As far as Beijing is concerned, violations of the median line in the strait and of Taiwan's air identification zone by balloons, aircrafts and even missiles of the Chinese Armed Forces are increasing, while violations are being observed around the Kinmen Islands, off Xiamen, and the sabotage of submarine cables between the northern tip of the main island and the Matsu Islands archipelago. Furthermore, the circulation of photos and satellite images showing an increase in landing exercises by the Chinese armed forces, which now involve the use of large barges, tends to confirm the intentions of the Chinese authorities to resolve the "Taiwan problem".

Different Invasion Scenarios

In recent years, several scenarios have been considered to anticipate the different ways Beijing could force Taiwan's reintegration. The first, based on "wargaming" exercises conducted by the Pentagon, involves a forceful attack on Taiwan. The second, promoted by the American think tank CSIS - China Power, adopts a coercive approach,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imposition of a quarantine zone or, more simply, a gradual economic blockade of the island. The third scenario, published by the author, involves a gradual and sequenced invasion of Taiwan-controlled territories, using a blockade technique.

Scenario #1: Heavy Attack on the Main Island

Although the details of the simulation exercises conducted by the Pentagon are unknown, it is expected that an all-out attack from China would include a wave of thousands of missiles,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air and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aval blockade, as well as massive cyber-attacks, sabotage actions and communication warfare campaign. Depending on the different scenario considered, the confrontation could last from several weeks to several months and result in the loss, for China, of nearly 150,000 troops and a large number of surface units of the PLAN, while the US Navy could lose several aircraft carriers and numerous fighter jets, while there is no guarantee that either side would achieve air or naval superiority.

On a practical level, this scenario is the riskiest in several ways, for practical, but also political, economic, and strategic reasons. First, the storm season extends for nearly seven months, reducing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an attack that can only be carried out on a limited number of beaches, given the heavily urbanized coastline. On a military level, the lack of landing craft and barges, as well as marine and/or airborne troops, factors that, combined with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a complete rotation between the coast and the island, could only further complicate the task at hand. Politically, China would undoubtedly come under severe and growing pressure coupled with increased isolation, both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Economically, establishing naval superiority would require the complete rerouting of all civilian maritime traffic within the strait or even around the entire Taiwan area, which would seriously disrupt maritime transport as well as regional and international port activity, potentially for several months. The same would apply to air traffic, which would have to be rerouted throughout Taiwan and Fujian airspace, and even beyond, if the Chinese Air Force mobilizes airports and airfields in Guangdong, Zhejiang, and Jiangxi (or even those located in the South China Sea).

Bloomberg, in particular, has estimated that a high-intensity open conflict could lead to a loss of 10% of global GDP—17% for China and 40% for Taiwan—and even to a 50% to 80% drop in trade to and from Asia in case the conflict would drag on for months.

Scenario #2: Complete Blockade of Taiwan's Main Island

In a series of three publications released in 2024, the American think tank CSIS - China Power explored three variations of the same scenario aimed at establishing a blockade around Taiwan in order to assert its authority over the rebellious island by gradually increasing economic and political pressure through various means of coercion: the establishment of a naval and/or air interdiction zone, the implementation of a "quarantine" or "blockade," both through the permanent, regular, or occasional deployment of dozens of ships (navy, coast guard, maritime militia), the mobilization of the strategic missile force, or the deployment of a naval minefield.

The credibility of this scenario was demonstrated in practice in 2022, during the fourth Taiwan Strait crisis triggered by Nancy Pelosi's visit to the island. In response to this visit, the Chinese authorities deployed dozens of ships and aircraft, established no-fly zones, and conducted several live-fire exercises, including missile launches in Taiwanese airspace, some of which landed in Japan's exclusive economic zone. These exercises have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ince been organized annually, more or less following the same pattern as in 2022.

These exercises are in addition to naval air exercis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Bohai Sea, increasingly frequent deployments around the Kinmen Islands, the Diaoyu Islands, and the East China Sea, median line violations, balloon releases, and almost daily violations of Taiwan's air identification zone.

Scenario #3 :

In an article published in September 2023 in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Strategy (KIMS) under the title "Taiwan: An Alternative and Painless Invasion," the author of these lines presented a third scenario consisting of a gradual takeover of Taiwan-controlled territories, including the Kinmen, Wuqiu, and Matsu Islands, the Pescadores Islands, the islands located in the South China Sea (Itu Aba and Pratas), and then the main island of Taiwan, through a non-lethal and sequenced approach.

The idea here is simple: establishing a complete blockade of all the islands, islets, and reefs closest to the mainland, through the massive mobilization of all available naval assets, from the PLA, the coast guard, and the entire maritime militia (up to 8,000 trawlers), in order to constitute a hermetic barrier and wait, without ever using force, until the water, food, and fuel supplies are exhausted, and then take these same territories "without violence". Such action would have the advantage of gradually depriving Taiwan of its advanced sensors and forward operating bases, and subsequently facilitating the conduct of a possible forceful action, while increasing the prestige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armed forces, and correspondingly diminishing that of the opposing authorities and armed forces, and dealing a significant blow to the morale of the population, further facilitating possible undermining efforts by psychological warfare and mass manipulation carried out by Chinese media, local "united front" cells and pro-China influencers.

Thus, initially, the Kinmen, Wuqiu, and Matsu islands would fall, followed by the Pratas and Itu Aba islands, then the Pescadores archipelago, and finally, the main island of Taiwan. In such a scenario, any attempt by the besieged to "exit by force" or to break the blockade by a relief force from the main island could be seen (or presented as such by the Chinese media and authorities) as an aggression against China.

The United States, an unreliable partner?

While Donald Trump has publicly criticized Taiwan for its "dominance" in the electronic chip sector, it's worth remembering that chip manufacturing represents only one of many dimensions of the value chain, and that in a number of other areas, the United States holds a largely dominant position. Moreover, TSMC's decision to invest an additional \$1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brings its total investment in the country to \$165 billion, a sum that is anything but insignificant.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investment can also be seen as the civilian counterpart to the massive military equipment orders placed by Taiwan since 1979,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defense industry. This loyalty, however, has been poorly rewarded given the latter's systematic and systemic delay in fulfilling these orders, with several years of delays. In total, Taiwan has placed orders for a cumulative amount of \$93 billion by 2022 (or \$182 billion adjusting for inflation), \$22 billion of which are still awaiting delivery despite promises made by recent presidents. Among other equipment, deliveries of F-16 fighter jets and missiles have been repeatedly delayed and are now several years behind the initial schedule.

The United States has nevertheless engaged with Taiwan on numerous occasions, including during the Taiwan Strait crises of 1954-1955, 1958, and 1995. Even after the withdrawal of American forces in 1974 and the recognition of Communist China in 1979, the Taiwan Relations Act cemented the relationship for the decades that followed, and this support has been renewed—mediaticall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in numerous ways.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ivot policy initiated by Barack Obama, after a long focus on the Middle East, has not led to any notable strategic reinvestment in Taiwan, just, albeit marginally, in the Philippines, while the number of soldiers positioned in Japan, South Korea and Guam has continued to decline, while the fourth crisis in the Taiwan Strait has not given rise to any American reaction following the Chinese demonstration of force.

This feeling of abandonment, though relative, may have been heightened, since Donald Trump's electi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a series of rather surprising behaviors: criticism of most traditional allies and partners, threats to impose tariffs on Canada, Australia, Mexico, and the European Union, a desire to seize Greenland "one way or another," playing into Russia's hands, claiming not to know the meaning of the acronym "AUKUS," and threatening to exclude Canada from the "Five Eyes" intelligence network. Regarding AUKUS in particular, a program that was nevertheless an emblematic one initiated under the Biden presidency, the Secretary of Defense, after confirming the receipt of a \$500 million Australian payment, spoke of the impossibility of implementing it. All of this, certainly, cannot contribute to the peace of mind of Taiwan's political and military elites.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as troubling as it may be, should not make us forget that Taiwan is developing its ow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fense base, with significant successes in the fields of submarines, surface ships, drones and munitions, including hypervelocity missiles.

China, maneuvering to intimidate Taiwan

As we have seen, China is pulling out all the stops to intimidate Taiwan and facilitate its reintegration by any means. However, military action is only considered as a last resort, as Beijing is well aware of the potentially catastrophic damage that a failed invasion would cause.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o achieve its objective without resorting directly to violence, China employs a set of methods that fall into three categories: access denial, hybrid warfare, and gray zone techniques. The first, potentially lethal, aims to establish the capacity to deploy and maintain a bubble or interdiction zone, whether through military means on land, at sea, or in the air. To this end, the Chinese armed forces have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ir radar and anti-ship and anti-aircraft missile systems, expanded and improved air bases along the coast, and increased the number and quality of their ships and aircraft. The second includes a set of administrative and legal means, aimed on the one hand at contesting the median line, both at sea and in the air (through the unilateral establishment and modification of flight plans for civil aviation over the strait), and on the other hand at facilitating the conduct of business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strait, while making it easier for Taiwanese citizens to obtain quasi-local identity cards.

The third consists, among other means, of waging an intense information war, deploying ships with increasing frequency, in ever-increasing numbers, ever closer to the coasts of the islands under Taiwan's control, as well as aircraft, in order to exhaust Taiwanese pilots and crews, contest Taiwan's maritime and airspace, create a "new normal" to its advantage, and display an increasingly aggressive attitude.

Taipei's neighbors, unsupportive and undemonstrative

If Taiwan didn't have enough problems to solve, it's clear that some countries geographically close to Taiwan do not always act in its best interests. These include the South Pacific countries, which are increasingly turning away from Taiwan each year in exchange for short-term economic aid from China, or certain Sou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Malaysia and Singapore, which publicly call for the island's "peaceful reunification" with China, thus adopting the official vocabulary of the Chinese authorities.

All this without counting the individual interventions of certain Asian stars, visible internationally, who openly support Beijing (after having previously supported its adversary), or who refer to Taiwan as "China Taipei," sometimes after having designated Taiwan as an independent state. All these reversals and changes of position are further evidence of China's activism. Furthermore,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volvement of Chinese influencers based o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 and even internationally, in favor of Taiwan's annexation to China. Recently, a Chinese citizen residing in Taiwan named "Yaya" became known after producing and distributing numerous contents openly in favor of the reunification of Taiwan by force and who saw her residence permit not renewed, which did not prevent her from coming to protest against her expulsion on the very day of her departure with a group of supporters in front of an official building in Taipei.

Conclusion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While it cannot be said that Taiwan has been abandoned by the United States, or abandoned by its neighbors, it is clear that it faces significant threats from China and that a lack of support, both in the media and political terms, combined with a cessation of aid and/or arms deliveries, as was the case, even for a short period, with Ukraine, could be perceived by the Chinese political and military authorities as an admission of weakness and a signal that the right time for intervention may have arrived. Although the majority of Taiwanese people support a status quo position and do not identify with China, it is nevertheless clear that most citizens are not prepared to make the necessary sacrifices to defend themselves alone against the threat from Beijing. On the other hand, Taiwan's armed forces face four major challenges: an aging population, a disaffection for military careers, aging combat platforms, and the country's extreme dependence on the sea for imports and exports. However, the lessons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demonstrate that new equipment and new strategies exist that could enable it to withstand aggression.

Moreover, Taiwan is not alone in the face of Chinese aggression, and several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Japan,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lso face the same adversary. Japan, in particular, is building new defense installations in the Yonaguni Islands (Ryu Kyu archipelago), including Type-12 missiles whose range will be increased from 200 to 1000 km, while the Philippines has acquired several batteries of Brahmos missiles, which may ensure that a complete encirclement will be more difficult for Beijing to establish than initially imagined, while the United States' strategy of dispersing its aircraft should prevent any total air superiority.

약력

벤자민 블랑탱 박사는 중국 비대칭 전력과 남중국해 갈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해양안보 전문가이다. 그는 현재 요코스카 카운슬(Yokosuka Council on Asia Pacific Studies),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스트라스베이스 연구소, 그리고 스탠퍼드대학 시라이트 프로젝트의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Dr. Benjamin Blandin (Doctor in Political Science) is a French Expert in Maritime Security with a focus on China's asymmetric warfare and on the South China Sea conflict. Dr. Blandin is a Non-Resident Research Fellow at the Yokosuka Council on Asia Pacific Studies (YCAPS), at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Strategy (KIMS), at Stratbase and at the SeaLight Project (Gordian Knot Center, Stanford University).

국내외 참고자료

- [Tong Ligu.](#) “Six Changes in U.S. Policy on Taiwan.” *China US Focus*, July 9, 2025.
- [Natalie Caloca.](#) “China in the Taiwan Strait: May 2025.” *CFR*. July 8, 2025.
- [Eric Liu and Brandon Tran.](#) “Time for a 21st Century Upgrade to US Taiwan Policy.” *The Diplomat*. June 13, 2025.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보기](#)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